

농협 “고객피해 전액 보상하겠습니다”

“고도의 사이버 테러…

Copy 명령 훈적없어

고객정보는 유출안돼”

농협은 18일 전산장애로 인한 금융거래 마비와 관련, 고객의 경제적 피해는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은 또 이번 사고로 인한 정보유출은 절대 없었다면서 현재 복구작업 주체라면 오는 22일까지 대고객 업무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이재관 전무는 이날 농협중앙회 별관에서 전산장애 관련 중간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언급했다.

농협은 “17일 오후 6시까지 31만 1000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나 이중 피해보상 요구는 920건이었다”면서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해 청구한 12건 558만원 가운데 공공기관의 이자 납입 지연 2건에 대해서는 163만원을 보상완료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손해배상과 관련, “전산장애와 관련해 발생한 연체이자, 이체 수수료 등을 민원접수와 상관없이 100% 보상하고,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한 신용불량정보는 타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삭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민원은 피해금액에 따라 50만원 이하는 영업점에서, 50만원 이상은 종양본부에서



전산장애로 인한 금융거래 마비와 관련해 농협족이 고객의 경제적 피해는 전액 보상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8일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 사과의 플래카드가 내걸려있다.

/연합뉴스

심사해 보상하고, 심사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고객은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그러나 간접 피해의 경우 입증되는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손해배상을 돌려싸고 농협과 고객 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복구작업과 관련, 농협은 “대고객 업무는 대부분 복구가 완료됐으며 카드 고객정보 원장은 복구가 완료돼 정상화됐다”면서 “가맹점 대금입금 업무와 체음카드 발급 및 재발급 등

일부 업무를 복구 중에 있으며 22일 까지 대고객 업무는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 측은 일부 금융거래내역이 유실될 가능성에 대해 “가맹점이 되려면 ‘복사(copy)’ 명령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삭제 명령만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겸찰 수사 및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특별검사와 관련, “겸찰수사와 감독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를 포함해 책임자를 엄정 문책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농협 측은 전산장애로 인한 고객들의 정보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재관 전무는 “정보유출이 되려면 ‘복사(copy)’ 명령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삭제 명령만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겸찰 수사 및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특별검사와 관련, “겸찰수사와 감독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를 포함해 책임자를 엄정 문책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네바 국제발명전 참가한 지역업체 패거

G금강 ‘다기능 복토직파기’ 금상 수상

G금강(주)의 BOKTO Multi-Seeder(다기능 복토직파기)가 지난 6~10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린 제39회 제네바 국제발명·신기술 및 신제품전시회(이하 제네바국제발명전)에서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금상을 수상하는 패거를 이뤘다.

특히 G금강(주)은 스위스 제네바국제발명전과 관련 지난 10여년 간 한국에서 농기계 분야의 참가가 없었으며 올해 유일하게 참가해 금

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지역과 한국농기계 분야의 위상을 드높였다.

BOKTO Multi-Seeder는 조파·점파가 동시에 가능하고 한 개의 장치로 다양한 종류의 종자 파종이 가능 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일반 파

종기는 건조·습답용으로 분리되어 정해진 조건에서만 파종이 가능하지만 BOKTO Multi-Seeder는 다 기능으로 양쪽의 조건을 충족시키

며 자동차세eder 장치가 부착돼 트랙터 운전만 가능하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좌우수평, 경심, 차체빼짐 높이자세제어로 자동차의 VDC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

한편 이번 제네바국제발명전은 세계적 권위의 국제발명전으로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 등 45개국 765개 업체 중 1000여점의 발명품이 출품됐다.

또한 복토직파제배법 및 농법 등을 각종 토질과 지역 특성에 맞게 농법을 개발하고 교육해 있으며 기업의 이운보다 FTA를 대비해 농업생력화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번 제네바국제발명전은 세계적 권위의 국제발명전으로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 등 45개국 765개 업체 중 1000여점의 발명품이 출품됐다.

/최재호기자 lion@

30%, 화학비료 3분의 1 절감, 미질 향상, 수확량 보존 등)를 위해 수차례 제품을 설계해 기존 다기능 복토직파기에서 현재 기계적으로 보강한 BOKTO Multi-Seeder까지 선보이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다.

또한 복토직파제배법 및 농법 등을 각종 토질과 지역 특성에 맞게 농법을 개발하고 교육해 있으며 기업의 이운보다 FTA를 대비해 농업생력화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번 제네바국제발명전은 세계적 권위의 국제발명전으로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 등 45개국 765개 업체 중 1000여점의 발명품이 출품됐다.

/최재호기자 lion@

30%, 화학비료 3분의 1 절감, 미질 향상, 수확량 보존 등)를 위해 수차례 제품을 설계해 기존 다기능 복토직파기에서 현재 기계적으로 보강한 BOKTO Multi-Seeder까지 선보이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었다.

또한 복토직파제배법 및 농법 등을 각종 토질과 지역 특성에 맞게 농법을 개발하고 교육해 있으며 기업의 이운보다 FTA를 대비해 농업생력화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번 제네바국제발명전은 세계적 권위의 국제발명전으로 올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 등 45개국 765개 업체 중 1000여점의 발명품이 출품됐다.

/최재호기자 lion@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건적이나 덤펑건적은 놓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광주 등산장비의 자존심

백두산악

왜! 백두산악에 열광하는가?

하나 초보부터 전문 산행까지
고르게 모두 편안!

둘 등급 수입의 청부터 오토 철강!
장비까지 다 있다!

셋 가격이 없고 더 싸고 일을 수 있다!

■ 지하철 : 김대중 컨벤션센터(3번출구)에서 공항방면 500m 위치

■ 버스 : 19, 20, 38, 62, 73, 160, 1000 서창입구 정류장 하차

직원 수시 모집

(주)백두산악 광주아울렛점

문의/전화 ☎ (062) 267-2562

♣ 기업체 판촉물 상담환영 ♣

광주 서구 352-7788
(062)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061)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 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

백화점 봄 세일 매출 증가 “나들이용품 덕”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17일 간 진행한 봄 정기세일 행사에서 나들이 활동 증가에 따른 관련 상품 덕에 지난해보다 높은 매출 증가를 보였다.

18일 광주신세계, 롯데 백화점 광주점 등 지역 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1~17일까지 진행된 봄 정기 세일기간 동안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5%~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1일~17일까지 해피 봄 정기세일 매출이 지난해 보다 11% 늘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영향으로 선글라스 (48%) 모자·양산·스카

프 등 매출이 27%로 매출 증가를 이끌었으며 스포츠 장르 (3%) 아웃도어 용품(26%) 계절 화장품 (9%) 매출이 상승했다. 또 운동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런닝화가 54% 높은 신장세를 보였고, 명품도 38%로 매출 신장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정바지, 티셔츠 등 영웨어브 장르와 패션스트리트도 각각 16%, 21% 신장됐고, 수영복과 골프용품도 각각 19%, 5% 신장됐다.

박민철 광주신세계 고객진약팀장은 “세일 초반 완연한 봄날씨와 함께 야외 활동 증가로 나들이 관련 캐주얼 의류나 잡화 장르를 증

식으로 매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훈수와 집단장 시즌을 맞아 가전 12.2%, 잡화 10.4%로 가장 눈에 띄는 신장을 보였으며 남성 4.7%, 식품 1.8%, 여성 0.8% 증가세를 보였다.

광주 현대백화점은 고가상품 매출로 지난해 보다 두자릿 수 이상 높은 신장을 보았다.

현대신한카드와 함께한 6개월 무이자 행사를 지난해보다 명품이 80% 이상 대박을 터뜨렸으며 가전 용품도 60% 이상 매출이 뛰었다. 이외에 아웃도어에도 두자릿 수 이상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中 지급준비율 인상… “국내 금융시장 영향 없다”

위안화 절상 주목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은 시중금리를 50bp 인상한 20.5%로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10차례 지준율을 인상했으며, 기준금리인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도 지난해 10월 이후 4차례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본격적인 긴축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나, 지준율 인상이 금리 인상과 위안화 절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18일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中, 긴축의지 재확인…韓 금융시장
반응 주목=중국은 지준율 인상으로 긴축의지를 대내외 재확인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원·달러 환율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큰 영향을 받

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지준율 인상은 물가 급등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미 예전됐던 재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이 긴축조치 강화 차원에서 금리 인상과 위안화 절상 카드를 꺼내 들 것인지 여부다.

중국 정부는 이번 지준율 인상으로 3000억(440억 달러)~4000억 위안(600억 달러)의 유동성 흡수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의 예상대로 시중 유동성 증가 세가 드러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올 하반기 이후 높춰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위안화 절상도 뒤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의 지준율 인상에도 뛰는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 금리 인상과 위안화 절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中 지준율 인상 이유는= 중국의 지준율 인상은 경제성장세 가속화에

따른 경기과열 및 시중 유동성 급증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단기 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감소했으나, 인플레 기대 심리 확산으로 실질예금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중국의 지준율 인상 조치는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번 지준율 인상으로 인민은행은 기존의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철회해 나가는 과정이라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유동성 흡수를 위한 추가 지준율 인상 등의 조치가 지속될 전망했다.

이승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소비자물가가 올해 확대 흐름을 지속하면서 2분기 중 6% 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따라서 2분기 중 중국의 긴축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보해, 웨빙음료 ‘블루베리 주스’ 출시

보해B&F(대표 임현우)가 웨빙
음료 ‘블루베리 100’ 주스를 출시
했다.